

남원시, 축소 위기 '노인 복지' 유지

자체 예산 3억 5800만원 편성 공공형 일자리·경로당 양곡지원 본예산, 심의 거쳐 16일 확정

남원시가 내년 줄어들 예정인 지역 공공형 노인 일자리 및 경로당 양곡지원을 자체 예산으로 현재 규모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정부 예산 삭감으로 축소 위기에 놓인 노인 일자리사업과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3억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규모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 고령층의 복지 사각지대와 경로당 양곡지원 감소로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로당 이용 노인층의 양곡부족과 박탈감을 해소함으로써 현재의 보편적 복지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최근 정부의 2023년도 국비지원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량과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량 축소가 발표됨에 따라 지난달 21일 관계부서에 적극



남원시가 지역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양곡지원을 자체 예산으로 현재 규모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문화활동 모습. <남원시 제공>

적인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시는 당초 정부의 복지예산 축소에 내년도 공약형 노인일자리 248명분이 줄어들 예정이었지만 2억53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 일자리 규모를 현행 3900여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 관내 등록 경로당 495개소에 대한 정부 양곡

지원이 1포대용 축소된 것과 관련해서도 1억500만원을 투입, 양곡이 4포대씩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두 사업의 관련 예산이 담긴 2023년 남원시 본예산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6일 확정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노사 상생형 일자리 발굴

기업 유치·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책권고안 확정

고창군이 노사 상생형 좋은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심덕섭 고창군수, 이영은 신활력경제정책관, 김영창 주민공동체 협의회장, 사측 대표, 노조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고창군 노·사·민·정 대표들은 지난 7일 군민 대상 설문조사·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한 7건의 정책권고안을 군에 전달했다.

고창군은 미래 일자리 비전, 기업유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개최한 노사민정 사회대화를 시작으로 각종 인터넷, 공론화 등을 거쳐 정책권고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정책 병행 ▲기업 유치를 초래될 수 있는 우려 사항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 촉구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다.

고창군은 그간 우량기업 유치는 물론 노사분규 없는 내실있는 기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갈등전환센터(대표 박지호)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 관계 유지에 힘써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어 주신 노사민정 대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군정을 추진하는 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활력 넘치는 고창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동학혁명 전봉준 장군 그린 '판소리' 공연

10일 정음 연극아트홀

정음시가 동학농민혁명 전봉준 장군의 활약을 재구성한 창작판소리 '늑두장군 전봉준' 공연을 선보인다.

정음시는 시가 주최하고 창작판소리연구원이 주관한 '늑두장군 전봉준' 공연이 10일 오후 3시, 연극아트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총 3부로 구성된 공연은 무능한 왕권과 세도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가련한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수운 최재우, 해일 최시형, 늑두장군 전봉준의 이야기를 그렸다.

1부는 전북도 무형문화재이자 판소리 '수궁가' 예능 보유자인 왕기석 명창이 '탐학을 금(禁)해주시오'를 주제로 교조신원과 고부봉기의 내용을 다룬다. 2부는 역시 전북도 무형문화재이자 판소리 '심청가' 예능 보유자인 송재영 명창이 '고통받는



왕기석 명창, 임진택 명창, 송재영 명창

민중은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를 주제로 무장기포와 백산대회, 황토현전승, 전주성입성 과정을 판소리로 열창한다.

이어 3부는 창작판소리연구위원 임진택 명창이 '갑오세 가보세'를 주제로 집강소 설치와 유금치전투 등의 내용을 노래하며 공연을 펼친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 '우수'

흥미·이해도 높여...2020년 이어 세번째 문화재청장상

고창군이 문화재청 '2022년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고창군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세번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은 문화재청에서 2018년부터 국민 누구나 문화재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 다양한 이야기를 반영한 흥미로운 안내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쉬운 안내판 등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문화재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재 안내판 완성도와 개선 추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고창군이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에서 기초지자체부문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

올해 고창군은 고창읍성(국가지정문화재 사

적)을 비롯해 총 10개소의 안내판을 정비했다.

새롭게 정비된 문화재 안내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학생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안내판 문안을 감수해왔다. 어려운 내용은 쉽게 풀어서 '해설' 위주에서 '이해'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다.

또 문화재 안내판에 문화재의 특징적인 사진과 그림, 사진 연표 등을 첨부해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누구나 쉽게 어려움이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오미숙 고창군 문화유산과장은 "앞으로도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문화재 가치를 높이고 '세계유산도시 고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군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음 사회시설 155곳 TV수신료 일괄 면제

정음시가 지역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155개소가 'TV수신료'를 일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음시는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달 3일-25일 관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TV수신료 면제대상 여부를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앞서 정음시의회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따라 경로당 등에 설치된 수상기는 TV수신료 면제대상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시의 조사결과 관내 총 155개소가 미혜택 시설임이 확인됐고 시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콜센터에 일괄 면제신청을 대행해 해당 시설들이 TV수신료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 나아가 관내 거주 중인 1만여명의 등록장애인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도 TV수신료 면제 및 감면 신청에 대한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

또 시 홈페이지와 자체 운영 전광판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홍보를 통해서도 내용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정음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많은 대상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인다



5개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고령자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고 위험지역 개선책 마련 등

남원시가 2021년을 기준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 이상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최경식 시장을 비롯해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남원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들은 회의에서 '남원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를 듣고 교통안전에 대한 5개년 중·장

기 종합 정책 방향과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심의했다.

'제4차 남원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생활밀착 교통안전 1번지 남원 시민과 함께'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21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위원들은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층을 위한 교통안전대책 강화,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책 마련,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번호판 없는 불법 오토바이 집중지도·단속,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시민단체 적극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전북도에 제출되며 고시·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